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평가 모형 개발

박 남 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평가 모형 개발’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비 지원을 받아 2006년 9월에 마친 연구로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9인-김성숙(광주교육대학교), 김성열(경남대학교), 박선형(조선대학교), 백종섭(대전대학교), 서민원(인제대학교), 오세희(인제대학교), 한신일(성균관대학교), 황윤환(광주교육대학교)-이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교수업적평가 모형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부 산하 국내 4년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교수업적평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의 교수업적평가 사례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4년제 대학 1,338명의 교수로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교수업적평가 모형과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를 토

대로 제안한 평가 모형, 그리고 정책 제안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수업적평가 실태 분석

교수업적평가 실태 분석을 위해서 2006년 5월 국·공·사립 4년제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응답한 총 113개 대학을 대학 형태와 설립 구분에 의거하여 국·공립 종합대학(20개), 교육대학(8개), 국·사립 산업대학(9개), 사립 종합대학(76개)으로 분류하고, 원 자료를 모두 정리한 후 CD로 제작하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명은 모두 코드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실태 조사는 각 대학 실태 분석을 위해 실태 분석 조사지와 함께 제출할 자료목록을 대학에 송부하였다.

조사지를 통해서 교수업적평가 모형 결정 과정, 각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 운영과 특성, 고유한 특징(강점), 문제점(애로점), 개선 계획,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등을 물었고, 요청한 자료는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수업적평가 내용(평가자, 평가 절차,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설문지 등), 결과 활용, 개별 대학의 관련 연구보고서, 개별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관련 장·단기 발전계획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일반대학 자료는 업적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계열별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모형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등 일정한 형식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인 결정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정책의 대상자인 교수회의 등을 통하여 교수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다.

둘째, 교수업적평가 모형과 관련하여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대분류의 비중인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영역의 비중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각 교수들이 이 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더니, 국·공립대학의 경우 3개 교, 사립대학은 10개 교가 교수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각 대학마다 활용하는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승진(상위직명의로의 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우수교육 교수 및 우수연구 교수 선정, 책임 강의시수 경감 및 각종 포상; 교내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연구교수 선정; 성과급 지급 기준, 연봉 산정 기준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정 과정이나 각 업적평가 항목 간의 비중, 평가의 기준과 내용,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이 제도 시행상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교육 영역과 봉사 영역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교육 영역은 강의실적 부문과 학생지도평가 부문, 강의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봉사 영역은 교내봉사 부문과 교외봉사 부문, 그리고 수상과 징계 부문으로 나누고 있었다.

교육 영역의 경우 학문 영역(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등), 대학의 지향(교육, 연구, 교육과 연구 등), 그리고 설립 주체(종교단체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크게 강의실적, 학생지도 실적, 강의평가로 구분하고 있었다.

강의실적 부문은 다시 기본 강의실적, 강의계획서, 강의결손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대학마다 이 중 일부를 적용하거나 배제하고 있었다.

학부생지도 부문은 지도교수, 국내외 연수시인솔지도, 졸업생 취업 알선 등이며, 대학원생지도 부문은 주로 석사와 박사논문지도 배출이 주요 내용이었다.

봉사 영역의 경우 대학마다 분류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봉사 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수상과 징계로 구분하고 있었다.

계열별 분석 내용 소개는 지면 부족으로 생략한다.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을 탐색하는 데 기초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모든 4년제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질문지를 발송하여 각 대학의 전공계열 비

율에 맞추어 10% 이상의 교수에게 설문지를 배포·회수한 후 회송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질문지에 참여한 교수들의 수는 총 1,338명(국·공립대학 : 86.3%, 사립대학 : 13.7% ; 일반대학 - 81.1%, 산업대학 - 11.6%, 교육대학 - 7.3%)이었다. 사립대학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수는 적어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반영되게 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들은 업적평가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고, 업적평가를 통해 불합리하게 통제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사립대, 일반대, 전임강사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교수가 참여해야 하며, 평가자를 다양화하고, 평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평가 영역은 대학의 특성과 교수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현상은 사립대, 일반대, 전임강사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평가는 개인차가 크게 나도록 하며, 강의평가에서 동료교수를 포함시키거나 학기 중에 평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전임강사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영역 평가 기준에서 학문 영역별, 전공별 차이 반응을 강화한다는 안에 높은 찬성을 보였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가 결과의 오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책과 합리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안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교수 업적평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대학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수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에는 낮은 찬성을 나타냈다.

현행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의 어려움/양적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부 대학에서 교수업적평가 시 특정 영역의 점수를 무한대로 놓고 평가자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립대학, 산업대학, 예체능 전공자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차원에서 교수가 주축이 된 교수업적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현행 교수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문 분야별, 교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업적평가 모델 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학문 분야를 고려한 연구실적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업적평가를 위한 보편적·타당적·합리적인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시'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산학협력 영역의 분리/신설 여부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육 : 연구 : 봉사의 반영 비율로 30 : 60 : 10을, 연구와 교육중심대학에서는 40 : 50 : 10을, 교육중심대학에서는 60 : 30 : 10을 가장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교육 : 연구 : 봉사 : 산학협력의 비율은 40 : 40 : 10 :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적평가 결과는 주로 우수교수 선정,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교내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되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보다는 교수능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 근거 자료

로 활용할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사립대학 교수들은 업적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였다.

IV. 교수업적평가 모형

연구진 차원에서 교수업적평가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초·중등학교 교원평가의 경우와 달리 대학은 특성이 서로 다르고, 이미 각 대학 차원의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모형은 활용 가능한 예시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각 학문 분야별 평가 기준과 배점 등도 제시하였으나, 향후 해당 학회나 학제 간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특성으로서 연구중점, 교육중점, 연구와 교육 중점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은 그 특성에 적합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안에서 개별 교수의 지향 활동(연구, 교육 혹은 병행)은 교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결정에 의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특성과 교수 개인의 지향하는 활동 특성이 병합된 종합모형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교육대학의 업적평가 모형은 초등교사 양성 교육기관이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무엇보다도 교육 영역의 비중을 높인 평가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교육과 학생지도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중심의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업적은 기본적으로 저서 중심과 논문 중심의 연구 track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이 track의 결정은 교수 각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였다. 인문사회계열의 업적은 수월성 높은 저서,

국제 SSCI등재논문, 국내 학진등재논문 등의 순서로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매겼다.

이 연구에 제시된 모형은 두 가지로, 모형 1은 저서 중심, 논문 중심의 track 차이에 따라 업적평가 산출물의 점수 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산출되는 방식이며, 모형 2는 저서 중심, 논문 중심의 track 차이에 따라 업적평가 산출물의 점수 차가 있지는 않으나 결정된 track에 따라 최소 충족요건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즉 저서 중심 track을 선택한 교수의 경우 저서에 대한 최소 점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논문 중심 track을 선택한 교수의 경우 논문에 대한 최소 점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공계열의 연구업적평가 모형은 기본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 영역의 3가지로 구분되 대학의 특성 및 교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공계열의 연구 영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세부 항목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정량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으므로 질적인 담보를 위한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impact factor의 장기 인용도를 반영하는 방법 및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였다.

모형 1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량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업적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모형 2는 산학협력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영역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연구업적과 산학협력 영역 업적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모형 3은 연구업적 모형의 연구업적평가 항목을 가급적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예체능계의 경우는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다양한 영역 중 미술 영역에 국한하여 두 가지

연구업적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도가 높은 예체능계 교수업적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예·체능 분야별 전체 학회 차원의 교수업적평가 개발에 대한 논의(공청회 및 각 분야 전문가 협의회 등)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둘째 그러한 논의에서 도출된 예·체능계 교수업적평가 개발의 큰 방향 하에, 각 대학이 운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체능계 각 영역 당 서너 가지(예 : 아주 상세한 평가 항목 분류, 중간정도, 크게 분류한 평가 항목 등)의 평가 모형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제언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교수업적평가 모형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제안한 방향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수업적평가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상체제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 업적의 경우 산학협력 결과, 즉 연구결과의 상업화, 직무발명,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수에게 지급함으로써 산학협력 업적평가의 모델 및 비중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업적평가의 적용·확산을 위해 산업체 경력의 인정, 교육 및 연구중심교수에 대한 교육과 연구업적 범위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 등을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업적평가 관련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내에서 학문 분야별 평가기준을 만들 때 객관적 기준이 없어서 학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학회가 연합하여 학문 분야별 평가지표 등을 상세히 개발하도록 학진과 협의하여 향후 몇 년간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문 분야 간 상호이해와 상대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수연구업적평가 학제 간 조정활동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학문 분야에 따라 논문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예 : 인문학 분야 중 특별 분야-가 있음. 이러한 분야는 다른 분야와 구분하여 양적 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학제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넷째, 우수 사례의 보급 및 확산이 필요하다. 먼저 교수업적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잘 하고 있는 대학을 발굴하여 정부 차원에서 시범대학으로 지정하거나 포상하는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유인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 및 교수 개인 특성, 질적인 담보장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우수대학들의 사례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소개함으로써 향후 다른 대학이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수업적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수업적평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

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VI. 맺는말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며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이 국내 다른 대학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세대 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

이 그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박남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전공하였다(Ph. D).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Guide to the successful thesis and dissertation』, 『교육전쟁론』, “시립대를 통한 대학 평창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지도” 외 다수가 있다.